

최욱경의 작품을 통해 본 한국 근현대미술의 다양성

October , 2016

DESIGN & EXHIBITION



Wook-kyung Choi: American Years 1960s-1970s

문의 국제갤러리 (02)735-8449 www.kukje.org



국제갤러리는 오는 10월 30일까지 강렬하고 대담한 화풍으로 유명한 추상화 작가 최욱경의 개인 전 'Wook-kyung Choi: American Years 1960s-1970s'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최욱경의 미국 체류기간인 1963년부터 1978년까지 약 15년간 제작된 회화 작품 70여점을 선보인다. 그가 미국에 체류하던 시기의 초기작품은 자유분방한 붓질과 강렬한 원색의 대비가 특징으로, 추상표현주의라는 서구 양식의 영향을 기반으로 한 자신의 조형양식을 찾아가는 실험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1970년대에 들어서 최욱경은 한국의 단청, 민화 등의 전통적인 색감과 뉴멕시코의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본격적으로 색채에 대해 실험하게 되는데, 당시 사회적, 정치적인 격변기를 지나고 있는 한국의 사회현실이 자연스레 반영되었으며 작품재료로서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장판지, 문창호지, 먹, 안료, 색연필 등이 보다 다채롭게 활용되었다. 특히, 그가 구축한 독자적인 작품세계는 그의 작가적 정신과 태도를 역설적으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당시 시대적으로 혁신적인 미국 추상표현주의의 흐름을 인지하고 세계 미술 사조의 흐름과 병행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국제갤러리는 이번 전시를 통해 최욱경의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그의 작업세계 및 시대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궁극적으로 한국 근현대미술의 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욱경의 작품을 통해 본 한국 근현대미술의 다양성



- 01_ 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에서 승자는 누구인가?
(Who is the Winner in this Bloody Battle?), 1968,
푸른 종이에 파스텔, 118×63cm,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02_ 보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This is what you see), 1975,
캔버스에 아크릴, 179× 244.5cm,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03_ 불합격품(Reject), 1974, 캔버스에 아크릴, 93.5×79cm,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04_ 무제(Untitled), c.1965, 캔버스에 아크릴, 102×136.5cm,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05_ 성난 여인(La Femme Fâché), 1966, 캔버스에 유채,
137×174cm,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